천태지관 수행, 현대명상과 만나다

'마음쉼터를 가다'

③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명상을 통해 얻은 지혜로 도시의 삶이 주는 어떠한 강렬한 경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기분은 집에 막상 도착해 짐을 풀고 사람들을 만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바닥을 친 자기 자신을 보며 느낀 것은 어떤 지혜를 얻었을 때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것을 지켜가는 것임이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명상수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됐고, 눈에 띈 것은 분당에 위치한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이었다. 4월 2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에 위치한 명상상담대학은 명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심 위치한 산중 사찰

천태종 직할사찰인 분당 대광사는 경기도 성남과 광주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나지막한 불곡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대광사는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가 단양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대중포교를 위해 천태종 종단 차원에서 건립한 사찰이다.

대광사는 특히 교통이 편리했다. 퇴근 후 분당 도심에서 약 10분가량 운전을 하니 대광사 표지판이 나왔다. 이외에도 분당 각 역마다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대 분당병원 옆에 위치해 찾기가 쉬웠다.

2001년 건립된 대광사는 산자락에 위치한 산사이면서도 도심과 가까운 특성을 반영해 곳곳에 현대인들에 맞는 시설을 도입했다. 먼저 전통사찰로서 동양 최대 규모의 목조건물인 미륵보전과 국내 최고 높이인 총 17m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불 좌상 등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북카페와 쉼터, 트레킹 코스 등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전통명상수련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길손을 반기는 곳은 북카페였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명상교육을 받기 전 간단한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북카페 앞쪽이 주차장으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찾은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천태종 차원에서 명상과 관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2011년 11월 기공 후 약 3년 2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건립됐다. 명상수련센터는 연면적 9,689㎡에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명상수련실, 다도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상 골자로 한 '내면 불사' 한창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외형적 불사와 함께 내면의 불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태종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으로 유명하다. 특히 불교학과와 법사과로 구성된 금강불교대학을 1983년부터 운영하면서 한국 불교교양대학을 선도해왔다. 전국 16곳의 금강불교대학 중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에는 명상에 특화된 명상상담대학을 두고 현대화된 불교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대중포교에 맞춘 현대화된 사찰 속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명상과 상담심리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처음부터 대광사가 명상상담대학을 개설해 운영해 온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금강불교대학을 2015년 폐지 한 후 명상상담대학을 개설했다. 좀 더 폭이 넓은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학장 진성 스님은 "관문사 금강불교대학을 비롯해 수십년 동안 구성된 커리큘럼과 체계를 자랑하는 금강불교대학 중 새롭게 생긴 이 곳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스님은 "명상상담대학은 총 3년의 과정으로 기존 불교대학과 명상관련 교육과정 중 가장 긴 교육을 자랑한다. 불교명상을 비롯해 일반 명상기법, 상담심리 등 관련된 모든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학과정을 수료 후엔 명상상담지도사 2급 자격증이, 대학원과정을 수료하면 명상상담지도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불교, 명상, 상담 3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B2면에 계속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4월 2일 전통명상수련센터에서 진행된 기본과정에 참여한 불자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일본 특유 신앙문화들
B4 책세상 —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B5 문화 — 불일미술관 특별기획전
B6 학술 — 한국민속학회 '땅설법' 세미나